

'청소년 철학소설' 시리즈 기획한 이효진 씨, 제1권 《공자 지하철을 타다》 쓴 김종욱 씨

'냉동고'에서 걸어나온  
철학자들, 소년을 만나.다.



● 왼쪽부터 김종욱·이효진 씨

“철학은 1990년대의 로큰롤이다.” 철학소설 《소피의 세계》를 쓴 노르웨이 작가 요슈타인 가아더가 1995년 프랑스 한 시사주간지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300만 부 이상 팔린 《소피의 세계》의 성공을 계기로 ‘철학카페’들이 성업했고, 철학서가 잇달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등 ‘세기말 철학대중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물론 이는 많은 스타 철학자를 키워온 프랑스적 상황이다. 한국은 어떨까? 2000년대를 살면서 냉소적이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 사회야말로 유럽보다 더 절실히 철학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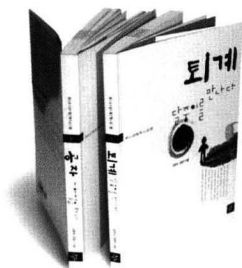
이미 나온 《공자 지하철을 타다》(김종욱·전호근, 이하 《공자》),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김은미·김영우, 이하 《퇴계》)를 필두로, 출간이 예정된 《플라톤 영화관에 가다》(조광제), 《노자 서울에 가다》(김시천), 《칸트 유엔에 가다》(박정하) 등 ‘청소년 철학소설’ 시리즈는 디딤돌이 한국철학사상연구회(www.hanphil.or.kr

이하 한철연)의 젊은 철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책이다. ‘냉동고 속에 갇혀 있던 ‘철학’을 끄집어내서 해동시킨 후 지금의 청소년 입맛에 맞는 퓨전 음식으로 새롭게 선보인다’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표다. 책임기획을 맡은 단행본 개발팀 이효진 씨는 ‘지금 내가 여기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면 어떨까?’라는 의문으로 책이 기획되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철학 시리즈를 기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전들의 텍스트를 새롭게 소개하는 인문서를 만들 생각이었죠. 가제이긴 했지만 시리즈 제목도 ‘살아 있는 고전 읽기’였습니다.”

● 살아 있는 고전 읽기 위한 새로운 실험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두 달 정도 기획회의를 하고 각자 1차분 집필에 들어갔다. 뜻밖에도 이들 철학자들이 선택한 글쓰기 방식은 소설이었다. 철학소설의 장점은 무거운, 그



래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철학적 주제를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이야기에 버무려 쉽게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재미있게 철학을 소개하기' 라는 미션이 부여된 철학자 등 저자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셈이다. 또한 소설 형식을 취하되, 자연스럽게 등장인물이 부각되도록 했다. 고전 텍스트에 지나치게 무게 중심을 둘 경우 스토리가 약해지고 딱딱한 지식을 소설체제에 덧붙이는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공자》만 현대가 배경이고 나머지 작품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판타지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가장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을 연구하는 저자들로서는 '이렇게 황당해도 되는가' 하고 곤혹스러워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곤혹스러움은 오히려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들 소설들의 장점은 단지 소설의 형식에 철학적 지식을 짜깁기한 데 그치지 않고 잘 버무려 과거의 인물을 현대에 '되살렸다'는 점이다.

첫 번째 권인 《공자》는 《장자역주》《동몽선습》《인간과 자연》《동양 철학은 물질 문명의 대안인가》 등을 쓴 동양철학자 전호근 씨와 동양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그의 아내 김종옥 씨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전 씨는 주로 사실 검증과 전체적인 방향 설정에 자문역할을 했고 글 쓰기는 김씨의 몫이었다.

● 《공자》, '2004 대한민국에 공자가 하고자 한 이야기'

21세기 서울에서 발명가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공자는 절친한 친구인 백수건달 장자와 식당 주모 맹자와 함께 한 글사용문제, 노숙자문제, 장애인문제 등 2004년 대한민국을 향해 쓴소리를 던진다. 사실 김씨는 10년 전 한 소식지에 〈공탁의 하루〉라는 제목의 콩트를 쓴 적이 있었다.

"공자와 장자가 친구로 등장해 농담을 주고받는 내용이었는데 반응이 좋았죠. 물론 그 콩트가 《공자》의 기본적인 바탕이 됐습니다. 《논어》의 원전을 읽어보면 공자는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신사고를 가진 진보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공자》를 쓰면서 공자의 모습이, 그리고 그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잡혔죠."

《공자》에서 공자가 발명가이자 시민운동가로 등장하는 이

유다. 공자의 터전은 고서적이거나 책상 위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물론 김씨로서는 《논어》를 소설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공자의 입을 빌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다행히 걸어다니는 《사서삼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 전호근 씨가 옆에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가령 경제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이끌어내고 싶을 때 전씨에게 공자가 한 말 중에 경제정의와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으면 줄줄이 꿰어져 나왔다.

"선생님들이 읽으시면 공자를 왜곡했다고 호통을 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많이 걱정했죠. 하지만 남편이 그러더군요. 논어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공자성'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공자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호근 씨는 후기 성격의 〈공자의 사상〉이라는 글에서 "좁은 의미에서 인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종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아픔을 느끼는 통각에 가깝다. 이를테면, 옆에 있던 사람이 손가락을 다쳤을 때 내가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인이요,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인이다"라고 쓰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맹자가 입양한 자폐장애아로 나오는 '백우'는 실제 저자의 첫째 아들 '성우'를 모델로 한 것이고, '공동체'라는 이상 사회를 꿈꾸는 마지막 장 〈공자, 대화마름을 보다〉 역시 김씨가 식구로 있는 전남 장수군의 생태공동체 소나무마을 [www.sonamoo.or.kr](http://www.sonamoo.or.kr)을 모델로 한 것이다.

"사실 《공자》는 사회문제를 담고 있는 탓에 청소년보다 어른이 더 읽기에 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는 과거로 간 달중이를 통해 500년 전 선비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달중이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친근한 주인공들에게서 진정한 공부란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의 재미는 저마다 다른 개성의 문체와 접근 방식으로 철학을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효진)

디딤돌은 앞으로 종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청소년 철학소설' 시리즈를 펴낼 계획이다. 원효, 니체, 루소, 소크라테스 등이 다음 철학소설에 등장할 주인공들이다. **한글**

취재 | 신동섭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